

신장이식 환자에서 위아전절제술 후 압축성 심낭염으로 발현한 전이성 위암 1예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¹, 흉부외과²

박혜원¹ · 김원진¹ · 김수진¹ · 송영수¹ · 오지은¹ · 이준희¹ · 박태진¹ · 이영기¹ · 조성우² · 신윤철²

A Case of Metastatic Adenocarcinoma Presenting as Constrictive Pericarditis after Subtotal Gastrectomy in Kidney Transplantation Patient

Park Hye Won¹, Kim Won Jin¹, Kim Soo Jin¹, Song Young Soo¹, Oh Ji Eun¹
Lee Jun Hee¹, Park Tae Jin¹, Lee Young Ki¹, Cho Seong Woo², Shin Yun Cheol²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¹,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²,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서 론 : 신장이식 후 강력한 면역억제제의 사용과 치료방법의 개선으로 환자 및 이식신의 생존율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식 환자의 연령도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장기간의 면역억제에 따른 악성 종양의 발생 또한 장기 생존자의 중요한 사망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이에 저자들은 신장이식 후 발생한 위암에 대해 근치적 치료 후 장기간 재발없이 지내다가 국소적으로 심낭에만 재발한 증례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 36세 남자 환자는 사구체 신염에 의한 만성 신부전으로 혈액 투석하다 10년전 생체 신장이식 받았다. 5년전 속쓰림으로 내원하여 위주변 임파선 전이를 동반한 진행성 위암, T3N2M0, stage IIIB로 위아전절제술, 경구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 받았으며 위암의 조직형은 signet ring cell type이었다. 위암 진단 이후 면역억제제는 prednisolone, cyclosporine만을 최소량으로 감량하여 복용하였으며, 혈청 creatinine 1.3-1.5 mg/dL로 신기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환자는 6개월 또는 1년마다 위내시경검사와 복부 CT로 추적 관찰하였으며 최근 내원 6개월 전에 시행한 결과에서도 재발한 증거는 없었다. 환자는 내원 4개월 전 1달간 지속되는 콧물, 마른 기침과 갑자기 발생한 심한 구토로 입원하였다. 입원 시 110/60 mmHg였던 혈압은 입원 24시간 후 80/60 mmHg로, 일일 요량은 400 mL로 감소하였으며, 혈청 creatinine 4.0 mg/dL로 상승하였다. 흉부 X선 사진에서 8개월 전에 비해 심장 크기가 증가하였으며 심낭압 전 의심 하에 응급 수술 시행하였다. 당시 1,000 mL정도의 혈성 심낭액이 배액되었고 심낭 조직검사에서는 섬유화를 동반한 만성 염증소견만 발견되었다. 수술 후 심낭액의 증가 없이 혈청 creatinine 1.4 mg/dL로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퇴원 후 환자는 1개월 간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내오다 내원 3개월 전 누우면 심해지는 호흡곤란과 기침, 하지부종 발생하여 시행한 심장초음파에서 압축성 심낭염이 의심되어 심낭제거술 시행하였으며 조직검사 결과 전이성 선암으로 진단되었다. 수술 후 증상은 호전되었으며 향후 항암치료를 고려중이다.